PBR 1배미만 코스닥법인 33%

12월 결산 코스닥법인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 33%인 231개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관리종목 등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695사를 대상으로 1/4분기 자본총액과 4월21일 종가를 기준으로 PBR를 계산한 결과 평균 1.77배를 기록했다.

벤처기업 360개의 PBR는 2.03배, 일반기업 320개는 1.78배이며 금융 5사는 1.28배로 나타났다.

PBR이 1배 미만인 회사는 벤처기업이 64개, 일반기업 155개, 금융업 12개 등이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PBR이 0.7배라면 회사 순자산장부가치가 100원으로 계상됐으나 주식시장에서는 70원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PBR 하위기업은 ▲대선조선 0.18배 ▲그랜드백화점 0.21배 ▲삼보판지 0.23배 ▲서부트럭터미널 0.26배 ▲동국산업 0.28배 ▲무림제지 0.29배 ▲대륙제관 0.31배 ▲한국전지·해성사업·선광 각각 0.32배 ▲제일창투 0.33배 ▲조아제약 0.34배 ▲영화직물·동양매직 각각 0.35배 ▲대동기어·세광알미늄 각각 0.38배 ▲우리기술투자 0.39배 ▲경축 0.40배 ▲대아건설·범양사·한림창투·드림라인·엔터원 각각 0.41배 ▲동원개발·부국철강·터보테크·흥구석유 각각 0.44배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4>